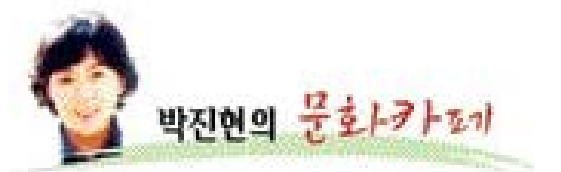


문화

“나만의 색깔로 세계무대 도전하라”



박진현의 문화카드



광주 작가 日 진출 돕는 도쿄 '갤러리 스트랜더' 정소영 관장

“배고픔을 두려워하지 말고,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야 진정한 작가입니다. 유행을 쫓아 보면 작품은 이미 낡은 세계가 되고,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도 없습니다.”

광주 작가들의 일본 화단 진출을 돕고 있는 도쿄 ‘갤러리 스트랜더’ 정소영(40) 관장이 5일 광주를 찾았다. 정 관장은 이날 광주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첫 시회를 돌리려고, 직접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 대화를 나누는 등 ‘작가 리서치’ 작업을 마쳤다.

그녀는 지난 2007년 일본 도쿄 미나토구 미나미 아자부에 갤러리를 오픈 한 뒤 벨기에, 일본, 한국의 신진 작가들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덕분에 최근에는 벨기에, 일본의 수많은 화랑이 젊은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해외의 진출을 돕는 철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난 4월 자신의 갤러리에서 손봉체, 주대희 작가의 초대전을 개최한 것을 계기로 광주 지역 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커져 이날 직접 광주를 찾았다.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아트페어에서 이들 작가의 작품을 눈여겨 본 뒤 초대전을 열었고, 현지 컬렉터들의 반응이 좋아 작가 리서치에 나선 것이다.

그녀는 광주에서 젊은 작가들이 마땅한 통로가 없어 해외 무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2~3년 전, 한국 작가들이 해외 아트페어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에는 일본 작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젊은 화랑이 젊은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해외의 진출을 돕는 철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발굴한 뒤 장시간 동안 창작을 지원하고 작품도 구입해 주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작가는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작품을 창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색깔의 작품을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해외 화단에서 주목받기 위해서는 ‘작가의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작가를 찾으려는 ‘눈(화랑)’들은 많다. 젊은 작가들은 유행에 민감해 비슷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해외 화단은 전혀 아무(亞流) 작가에게는 관심이 없다. 감동과 공감을 주는 자신의 철학을 작품에 담아 내야 한다.”

그녀는 지난 1994년 일본 유학길에 나서 순수미술을 전공한 후 독일인 남편과 함께 갤러리 스트랜더를 오픈했다. 또한 광주 작가의 일본 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일본의 젊은 화랑을 소개하기 위해 나인갤러리(관장 양상찬) 등과 협의 중이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사진=위직기자 jwvi@kwangju.co.kr)

루미나리에 추락의 교훈

스웨덴 출신의 미국 팝아티스트 클래스 올덴버그(80)는 조각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다. 빨래집게, 타자지우개, 서랍장, 숟가락 등 잡동사니들도 그의 손을 거치면 근사한 예술작품으로 변신해버린다.

필라델피아 시청앞의 빨래집게, 도쿄 국제무역전시청 앞 대형 톱, 미네아폴리스 도교역의 빨래와 스프라리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일상의 오브제들을 확대해 만든 이들 공공조형물은 삭막한 도시에서 생기를 불어넣는 랜드마크로 사랑받고 있다. 이를하여 ‘올덴버그 효과’ 세계의 유명미술관들과 대도시들이 수습여원의 작품값을 지불하며 그의 작품을 품에 안는 이유다.

그런 올덴버그가 서울에서 예기치 못한 굴욕을 당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서울 청계광장 입구에 세워진 작품 ‘스프링’이 최근 ‘서울 시민이 버리고 싶은 공공조형물 1위’에 뽑힌 것이다. 청계천 준공을 기념해 34억 원을 주고 들여와 작품을 설치하자 마자 ‘골뱅이탑 모양이 청계천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주변과 어울리지 않고 걸드냐’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청계천의 마스코트로 기대를 모았던 ‘스프링’이 천덕꾸러기가 된 이유는 주변과의 조화성, 시민들과의 교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발상 때문이다. 필라델피아시는 시청사 앞에 빨래집게라는 소박한 오브제를 설치해 권위적인 관공서의 이미지를 깨는 유쾌한 반란을 시도한 데 반해 서울시는 청계천과 연결고리가 하나 없는, 그저 올덴버그의 이름 하나만 보고 스프링을 세운 것이다.

비단 청계천만이 아니다. 광주에도 스프링과 같은 신세인 조형물이 여럿 있다. 광주시청사의 ‘광주의 빛(Ray of Gwangju)’과 충장로 5가, 예술의 거리에 늘어진 루미나리에가 그것이다.

‘광주의 빛’은 지난 2004년 광주시가 상무 시청사로 이전하면서 2억5천만 원을 들여 시청사 행정동 2·3층 벽면에 설치한 기념조형물. 하지만 광삼유를 소재로 무등산의 기상을 상징하는 작품 취지를 살리지 못해 시민들의 눈길 대신 민저만 뒤집어 쓰고 있다. 지난 2006년 동구청이 예술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4억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루미나리에 역시 팔불출 리스트에 올라 있다. 예술의 거리를 되살릴 컨텐트는 물론 주변과의 조화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화려한 인공조명을 선택해 시민들로부터 거리의 품격을 해치는 흉물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동구청이 충장로 5가 루미나리에를 철거한 데 이어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에도 오는 2012년 아시아 문화전당 준공이전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인 조형물이 3년만에 고철신세가 된 것이다. 근시안적인 행정의 대가로 막대한 수억 원을 지불한 셈이다. 그렇다면 전혀 소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스프링, 광주의 빛, 루미나리에에 추락해 우리는 시민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공공조형물은 애물단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번 루미나리에 철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이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국제공연예술제 이사진 구성

일부 이사 논란... 9일 예술감독 선임 논의

오는 10월 20일 열릴 예정인 광주 국제공연예술제(이하 공연예술제)가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는 등 행사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새로 선임된 일부 이사의 경우 지난해 공연예술제의 파행과 관련, 사퇴했던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문화계가 요구해온 ‘새난 짜기’와는 다소 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연예술제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말 회원 총회를 열고 오건탁 광주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또 이사로는 강박원(광주시의회 의장) 최종만(광주시 행정부시장), 안순일(광주시 교육감), 김성숙(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박흥석(광주상업회의장) 최규철(광주예총회장), 정해경(광주무용협회장), 임해철(호신대 교수), 김해경(조선대 교수), 정철(동신대 교수), 송기진(광주은행장), 남현일(광주테크노파크원장), 서한기(번호사), 조상렬(대동문화재단 이사장)씨를 선임했다.

하지만 지난해 부집행위원장이었던 일부 이사의 경우 공연예술제 파행과 관련, 박근혜 집행위원장과 동반 사퇴했던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이사로 선임된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이 일고 있다.

공연예술제는 조직 내 불협화음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지난해 행사를 치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사업비 반납 위기에 처하자 울쭉 ‘아시아 공연예술제’로 개관을 바꾸고 달고 간 신회 명맥만 유지했다.

한편 최근 열린 총회에서 효율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집행위원장 대신, 예술감독직을 도입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예술감독을 누가 맡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특적인 내정성이 흘러나오면서 문화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공연예술제 감독을 지냈던 최영희씨를 비롯,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예술제를 치렀던 박규상 광주연극협회장, 연극인 차영호씨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제 3인 물도 배제할 수 없다.

“이사회는 오는 9일 이사회를 열고 예술감독과 사무국장 선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건탁 이사장은 “지금까지 예술감독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사회에서 선임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속에 흐르는 클래식 선율

광주시향 11일 연주회... '클라리넷 신동' 김한 협연무대

‘인생은 아름다워’, ‘쇼쇼크 탈출’, ‘아웃 오브 아프리카’ 영화 속에 흐르는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시향교향악단(상임지휘자 구자범)이 11일 오후 5시 광주주예회관 대극장에서 ‘영화 속의 클래식’을 주제로 연주회를 갖는다.

취임 후 슈트라우스의 곡만으로 프로그램을 짰 6월의 정기연주회처럼 광주시민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선보였던 구 지휘자가 이번에는 영화를 통해 친숙한 곡들로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스텔리 큐브릭 감독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에 삽입됐던 슈트라우스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비롯해, ‘파리넬리’에 들렸던 ‘리날도’ 중 ‘올게하소서’, ‘플레톤’의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쇼쇼크 탈출’의 ‘피카르의 결혼’ 중 ‘편지 이중창’ 등이 주 레퍼토이다.

‘클라리넷 신동’으로 불리는 예원학교 2학년 김한(13·사단군)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 중 모차르트 ‘클라리넷협주곡 가장조 2악장’을 협연하며 성악가 오미선·추희명씨가 출연한다.

이번 공연에는 시각장애인을 초청했다. 시각장애인의 관람 편의를 위해 공연 시간을 주말 오후 5시대로 정했으며 프로그램도 일부 점자로 제작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시향으로 문의하면 초대권을 증정한다. 3만원, 2만원, 1만원, 대학생까지 50% 할인. 문의 062-524-5086. /김미경기자 mekim@

이렇게 말했다’를 비롯해, ‘파리넬리’에 들렸던 ‘리날도’ 중 ‘올게하소서’, ‘플레톤’의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쇼쇼크 탈출’의 ‘피카르의 결혼’ 중 ‘편지 이중창’ 등이 주 레퍼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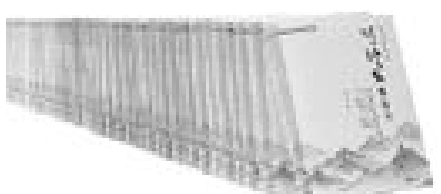
‘클라리넷 신동’으로 불리는 예원학교 2학년 김한(13·사단군)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 중 모차르트 ‘클라리넷협주곡 가장조 2악장’을 협연하며 성악가 오미선·추희명씨가 출연한다.

이번 공연에는 시각장애인을 초청했다. 시각장애인의 관람 편의를 위해 공연 시간을 주말 오후 5시대로 정했으며 프로그램도 일부 점자로 제작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시향으로 문의하면 초대권을 증정한다. 3만원, 2만원, 1만원, 대학생까지 50% 할인. 문의 062-524-5086. /김미경기자 mekim@

조선후기 지리지 '여지도서' 완역본 출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조선시대 대표적 정사(正史)에 버금가는 조선후기 인문지리지 '여지도서'(輿地圖書)를 50권으로 엮은 한글판 완역본이 최근 출간됐다.

이번 한글판은 조선 말도 353개 고을의 채색 지도·도량보·관공서 등 지리 정보와 함께 성씨와 풍속, 특산물에서 각종 세급의 명목, 객사(客舍)에 걸린 기문(記文)과 한시에 이르기까지 조선 후기 사회 전반을 엿볼 수 있는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다. 전주대 변주승 교수(역사문화콘텐츠 전공) 등 한국사 전공자 20여 명으로 꾸려진 여지도서 번역 연구팀은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2002년 5월부터 7년여 동안의 작업 끝에 최근 번역을 마쳤다. 영조시대(1757~1765)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여지도서'는 조선 중기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증보한 것으로, 원본은 서울 저동 한국고학



사연구소에 보관돼 있으며 이번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가 1973년 원본에 빠진 40여 고을을 덧붙여 발간한 영인본을 바탕으로 했다. 44권부터 50권까지 전라도 보유 편이다. (디지털호를 전 50권 색인CD 76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국민법률경제(주)' featuring '법원부동산경매정보' and '공인중개사/경매분석사: 정미경'. Includes contact info: TEL: 062-351-0664, H·P: 010-7628-0664.